

10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2496.51 (-13.55)	829.74 (-6.11)
금리 (미국 9년)	환율 (원/달러)
3.273 (+0.017)	1324.80 (+0.90)



중소기업인대회 5대그룹 총수 참여 대통령실서 화합 이룬다 02

K-반도체, 中 장비반입 완화되나... 美, 별도기준 검토

美, 對中 장비반입 규제 완화시 범용제품 제작에 무리 없을 듯

증권가, 반도체 3분기 저점 예상 삼성 '감산 효과' 본격화 기대 속 경기침체로 완전한 업턴은 비판

반도체 업계 악재가 조금씩 해소되는 분위기다. 다만 시장이 회복하기까지는 여전히 갈길이 멀다는 게 중론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한국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장비 반입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중국에 첨단 반도체 장비 반입을 통제하는 규제를 시작한 바 있다.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는 1년간 유예를 적용했지만, 기간이 끝나는 오는 10월부터는 추가로 장비를 반입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최근 미국이 유예를 연장할 수 있다

는 전망도 나왔지만, 장기적으로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하는 반도체 산업 특성상 불확실성으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문제는 여전했다.

특히 미국 정부가 반도체 투자 보조금에 적용하는 가드레일 조항에도 중국 투자 제한 내용을 포함하면서 중국 의존도가 높은 국내 반도체 업계에는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미국이 중국으로 반입할 수 있는 반도체 장비 수준을 정하는 대신, 기간에는 따로 제한을 두지 않는 내용을 검토중일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현실화하면 중국 공장을 첨단 기지로 활용하기는 여전히 어렵겠지만, 범용 제품을 만드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현지 공장을 레거시 제품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시안 반도체 공장은 128단 낸드, SK하이닉스 우시 공장은 2세대 10나노(1y)급 D램과 함께 인텔에서 인수한 다렌 공장에서는 144단 낸드까지를 만들어왔다. 미국이 첨단 반도체로 규정한 제한 수준이다. 최첨단 노광장비인 ASML EUV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EUV 없이도 생산 효율을 높일 대안도 새로 마련되고 있다. 아직 심자외선(DUV) 장비 반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침이 정해져있지 않고, 일본 캐논이 만드는 나노 임프린트 리소그래피(NIL)장비 도입도 꾸준히 거론된다.



'취임 1주년' 尹 대통령, 현충원 참배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출범 1주년인 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묵념하고 있다. /뉴시스



SK하이닉스 우시랩 /SK하이닉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좌우하는 전방 산업도 모처럼 기지개를 켜는 모습이 다. 구글이 신형 스마트폰 '픽셀 폴드'를 공개할 예정, 중국 바이두도 스마트폰을 만들겠다고 나서는 등 신제품 출시가 본격화하고 있다.

반도체 시장이 저점에 다가왔다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최근 컨퍼런스콜에 2분기부터는 반등을 점진 가는데, 증권가에 이

어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근반도체 경기 흐름과 거시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3분기 전에 저점에 근접할 것으로 내다봤다. 컴퓨터와 모바일기기 교체 주기가 임박했다는 이유다. 삼성전자가 단행한 감산 효과도 조만간 본격화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완전한 '업턴'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메모리가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인데, 글로

벌 경기 침체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 수요가 늘지 않으면 가격도 오르지 않는 탓에 내년까지도 수익을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로 트렌드포스는 전분기 대비 2분기 D램 평균판매가격(ASP) 하락폭을 최대 15%에서 18%로 확대 전망했다. 수요 축소를 감산 효과로도 상쇄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코로나19 금융지원에 국가채무 1000조 돌파... 잠재부실 '공포'

윤석열 정부 1년과 금융

<下> 돈 풀고 빚 늘고

건축 경영에 물가 관리는 선방 눈덩이 대출에 부실 우려 높아

최근 1년은 금융시장 불안과 경기긴축이 이어지면서 정부의 경제정책 초점은 물가 안정이었다. 물가는 6%대에서 3%대로 낮아졌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막대한 자금을 풀면서 나라빚 증가와 경기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 소비자물가 감소... 나라빚 증가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0.80(2020=100)으로 1년 전 대비 3.7% 올랐다. 이는 전월 상승률(4.2%)보

다 0.5%포인트(p) 낮은 것으로 물가상승률이 3%대로 둔화한 것은 작년 2월(3.7%)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연초 3%대를 시작으로 윤 정부가 출범한 5월 5.4% 기록 후 7월 6.3%까지 치솟으면서 외환위기(1998년 11월) 당시 6.8%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금리 인상 등 통화 긴축에 적극 나섰다. 이에 올 1월(5.2%), 2월(4.8%), 3월(4.2%)까지 떨어지더니 지난달 3.7%를 기록했다.

세계 주요국이 여전히 5%대 고물가가 지속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정부가 인플레이션 관리에서 선방했다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2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는 1067조7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돌파했다.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채무를 지난해 말 주민등록인구(5143만)로 나누면 1인당 국가채무는 2076만원이다.

지난달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2% 감소한 496억 2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월간 기준 국내 수출액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월 연속 감소세(전년 동월 대비)를 이어갔다.

기재부관계자는 "경기·금융시장·물가 전반의 불확실성 및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각별한 긴장감을 유지하며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

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생산성을 높이고 잠재 성장률을 키워나가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 코로나 대출 부실 뇌관 우려

오는 9월부터 코로나 금융지원이 종료되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부실이 터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대출 만기연장과 원리금 및 이자 상환유예 조치를 취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건수는 지난 4월 기준 25만 9594건으로 대출 잔액은 36조6206억원이다.

만기연장 액수는 34조8135억원으로 대출 원금·이자의 상환이 유예된 액수는 각각 1조5309억원, 2762억원으로 집

계됐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 및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에 나선 바 있다.

이 같은 조치는 2020년 9월말까지 6개월간 시행하려 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지금까지 5차례 연장됐고 오는 9월 종료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새출발기금(30조원)을 활용했다. 새출발기금은 캠코가 금융회사로부터 부실차주의 대출채권을 매입해 기존대출을 1~3년 거치, 최장 20년 만기의 분할상환대출로 바꾸주고 연체 90일 이상 부실 차주에 대해선 원금의 60~90%를 감면해 준다. (3면에 계속)

/이승용 기자 lsy2665@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尹정부 1년 개혁 성과... '잘했다' 41.3% '잘못했다' 55.4%
- ▲국힘, 내달 초까지 최고위원 보궐선거... 태영호 빈자리 채워 /사진 뉴시스

- ▲국방연구원 "美 자산배치 상시화 등 북핵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해야"
- ▲北,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주변 잔해 정리... 개성공단 무단가동과 연관



-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후원조직 회계담당자 조사 /사진 뉴시스
- ▲김관진 전 국방장관尹 국방혁신위 부위원장급 위원 내정